

새 생명의 기쁨을

너는 사랑들

WINTER

2022 Vol. 85

Korea Marrow Donor Program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

협회장 인사말	03
---------	----

전문가 칼럼

수만분의 일의 확률을 찾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기적 박금보래 원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진단검사의학과의원	04
--	----

사랑을 나눕니다

두렵고, 무섭고, 아파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참을 만 하고 버틸 만 해요. 기증자 박상규	08
---	----

항상 고맙습니다

기증자님의 용기 덕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격투기 선수 김형수	12
--	----

현장 STORY

제21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16
2022 조혈모세포 기증 사진 공모전	18
조혈모세포 기증자 징검다리 장학금 전달식	2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24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위원 활동을 되돌아보며	26
문정호 팀장 메디컬 매버릭스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팀	

KMDP 서포터즈 '온빛' 인터뷰

정나혜 온빛 : 온 세상에 빛을 주다	28
신가영 KMDP 정현신 코디네이터	30
김채이, 정나혜 건국대학교병원 남궁지혜 코디네이터	32
김채이, 정나혜 한국혈액암협회 장원영 부장	34

좋은 소식 전합니다

생명나눔, 사람이 하는일 김건중 사무총장	36
KMDP NEWS	38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40
역대 기증자 명단	41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약봉투로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을 돕습니다. 이수재 이사 터울 주식회사	44
함께 나누는 분들	46
혈액암 환우 응원 프로젝트	48
개인정보 변경 및 헌혈증 기부 안내	50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눔은사랑들

2022 WINTER Vol. 85

2022년 11월 1일 발행

발행인 신희영
편집책임 김건중
편집 지수희
발행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2길17, 2층
TEL 02-737-5533
FAX 02-737-5336, 7
E-mail KMDP@kmdp.or.kr
홈페이지 https://kmdp.or.kr

안녕하십니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 신희영입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여러분께 인사 드리게 된지 벌써 2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6천여 명이 넘는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여 새 생명의 희망을 전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록 기준, 약 40만 명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으로 생명나눔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힘써주신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의료진, 후원으로 도움 주시는 후원사와 후원자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조혈모세포 이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생면부지의 환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나누어 준 기증자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로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우리의 영웅, 조혈모세포 기증자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증희망자의 기증의사 유지를 독려하고, 후원자께는 나눔의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2022 조혈모세포 기증 사진 공모전 시상식>, <조혈모세포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장학금 전달식>으로 더 많은 분께 감사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헌혈자의 물적나눔으로 조성된 헌혈기부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에게 치료비와 투병물품을 제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쉽지 않는 날들을 보냈지만, 숭고한 생명나눔의 정신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임직원 일동은 이에 힘입어 더 크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나누는 기쁨,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해주신 기증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에 웃음과 건강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0.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 신희영

수만분의 일의 확률을 찾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기적

생후 11개월까지 건강하게 커오던 은별이(가명)는 어느 날 기운 없이 축 쳐지고, 열도 나서 가게 된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했지만, 치료효과가 좋지 않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은별이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6살 오빠가 있었는데요, 조직적 합성(HLA) 검사를 했더니, 운 좋게도 은별이와 오빠는 모든 HLA 항원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헌혈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기증이 가능하고, HLA가 모두 일치하는 형제자매가 이식 후 예후가 가장 좋은 최우선 순위 공여자이기 에 은별이 오빠는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위해 조혈 모세포 공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에게는 조금 더 오랫동안 누워있는 성분헌혈 과 같은 과정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사만 맞

으러 가도 자지러질 6세의 어린 은별이 오빠에게는 조혈모세포 공여를 위한 시술의 과정이 겁이 날 만 도 했을텐데요. 몇 시간 동안 누워서 푹땀땀한 눈 을 뜨고, 씩씩하게 “우리 동생이 더 이상 아프지 않 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던 예쁘고 기특하던 6살 은별이 오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년 뒤, 2 살이 된 은별이는 오빠로부터 이식 받은 조혈모세포 가 잘 정착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 들러주었 습니다.

64세의 김민식(가명) 님은 명이 자주 들고, 살도 빠지고, 기운이 없어 찾아간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 혈병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치료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아,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기로 하 였습니다. 우애 좋은 4남매의 장남이었던 민식님은 2명의 여동생과 1명의 남동생이 모두 HLA 검사를



박금보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진단검사의학과의원 원장

받았으나, 3명 모두 민식님과 HLA가 일치하지 않아 비혈연 공여자를 찾기 위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에 HLA일치 공여자 검색을 의뢰하고 하루하루 나빠지는 병세를 견디며 공여자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가 부작용이 적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추천되는데요. 형제자매간에도 HLA가 일치할 확률은 25%(1/4)에 불과합니다. 은별이처럼 1명의 오빠가 HLA가 일치하는 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김민식 님처럼 3명의 동생이 모두 HLA가 일치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1자녀 가정의 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서면서 형제자매 중 조혈모세포 이식 공여자를 찾기에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혈연 공여자 중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의 확률은 수만 명 중 1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의 HLA분포 통계를 통해 추정 계산해 보았을 때, 약 50만 명의 공여자가 등록될 경우, HLA-A, -B, -DR 항원수준(저해상도)에서 HLA가 완전히 일치하는 공여자를 1명 이상 찾을 수 있는 확률이 85~90%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항원수준 결과를 통해 유전자 수준(고해상도)의 결과를 예측해 본 분석에서 예상된 유전자형과 실제 유전자형이 불일치한 비율이 10~20%까지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항원수준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더라도 유전자 수준에서는 일부 항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가진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확률로 공여자를 찾을 수도 있



겠지만, 한국인에서 드문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여자를 찾을 확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HLA-A, -B, -C, -DR, -DQ까지 더 많은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수록 이식의 예후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10 또는 9/10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가 우선 추천되며, HLA가 일치하는 비혈연 이식 공여자를 찾는데 그만큼 더 큰 어려움이 있어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년 5월 현재, 국내의 비혈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약 40만 명으로 기증희망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HLA가 완전히 일치하는 이식적합 공여자를 찾는 데에는 여전히 확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HLA가 모두 일치하는 비혈연 적합 공여자를 찾아 성공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또다른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증희망등록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꾸준히 기증희망자의 수가 늘어나고, 적합공여자로 선정되었을 때 흔쾌히 기증을 결정해주시는 기증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사례의 김민식님은 몇 번의 과정을 통해 KMDP에서 공여자를 찾아 유전자검사를 추가 시행하였는데, 완전히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지 못해 차선책으로 1개 정도 HLA가 불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조금 더 있더라도 이식을 시도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부디 김민식님이 공여자를 찾아 은별이처럼 1년 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는 또 한번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해 봅니다.

의료진으로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확률의 기적을 알기에 기증희망등록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무섭고, 아파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참을 만 하고
버틸 만 해요.

기증자 박상규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중이고,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30살 박상규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저는 평소에 겁이 많고 무서움을 잘 느끼는 슈퍼 겁쟁이로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 겁쟁이가 어떻게 기증을 잘 끝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20살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안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부스가 있었고,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붙여 준다고 해서 호기심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혈모세포 기증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때 팔에 혈관이 잘 안보여서 여러 번 채혈 시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기증 전 혹은 기증희망등록 전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기증등록을 했을 때 설명을 들긴 했지만 거의 기억나지 않았고, 기증을 하기 전 안내를 받을 때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팔에 헌혈 하듯이 진행하는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방식에 대해 들었을 때에 헌혈을 한 번도 못해본 저는 무서웠었습니다. 심지어 혈관이 잘 안보이면 중심정맥관으로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증 등록 시 제 혈관을 찾지 못해 여러 번 채혈을 시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 기증희망 신청하시고 연락이 온건 얼마만인가요?

1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거신 분이 한국조혈모세포은행 협회인 것을 본 순간 갑자기 숨이 턱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너무 무서워서 5초정도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일치하는 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느낌은 어떠하셨는지요?

무서웠습니다. ‘기증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성적인 판단과 그 과정이 너무도 무섭고 걱정이 되는 감정이 계속해서 충돌했었습니다. 그때 전화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듣고 있는 중인데도 집중이 안돼서 다시 여쭙어 보고를 반복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때까지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기증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일단 검사라도 받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확신을 하지 못하고 ‘해야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절차를



따르던 중 이식수혜자가 어린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이 세상이 로봇으로 인해 편리한 세상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해 지금의 박사과정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꿈을 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의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이 아이가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두렵지만 한발 내딛어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주변분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나서 반응들은 어떠하셨나요?

멋 있다는 사람들 반, 그 무서운 걸 왜냐고 혼내는 사람들 반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도 처음 말씀을 드릴 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려고 결심했는지, 그 방법이 얼마나 안전한지 공부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증 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는 안하지만 걱정은 계속 했습니다. 제가 주사도 무서워하는 겁쟁이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 기증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한 것보다 아팠고, 생각한 것보다 무서웠고, 생각한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헌혈이 무서워서 못하고, 링거도 맞는 1시간 내내 주사 통증 때문에 울면서 맞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너무 긴장해서 온몸에 근육통이 생길 정도인 겁쟁이었기에 기증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참을 만 했고, 생각보다 힘이 났으



며, 생각보다 견딜 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던 두려움을 이겨내 보니, 참을 만 했던 고통을 참아내 보니 한명의 아이가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저 또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알고도 한발자국 내딛는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 뿌듯합니다.

☀️ 기증 이후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무섭고 힘들고 아픈데 조혈모세포 기증을 또 할 거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할 겁니다. 이

제 안 무섭고 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섭고 힘들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곁에 있어주었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코디님들이 입원 전과 후, 밤낮과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입원 중에는 많은 병원 간호사들께서 쉬지 않고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셨기에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증 전에는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였던 제 생각이 이제는 함께 노력하기에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환자가 저랑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연락을 듣게 된다면 저는 무섭고 힘들고 아프지만 또 기증을 하겠습니다.

☀ 기증 받으시는 수혜자 분께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저보다 훨씬 아프시고 힘들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 한마디를 꼭 헤드리고 싶어요. 이제 좋은 꿈, 예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면 충분해요.

☀ 막연한 두려움으로 기증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어떤 분은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기증 과정을 잘 보내셨지만 어떤 분은 기증에 대해 엄청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된 계기가 생겼고 그로 인해 불안장애가 심하게 와서 우울증에 걸려 수 개월간 약물치료를

를 받아왔었습니다. 이런 저도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아파요. 사실은 사실이니깐요. 그런데 참을 만 하고 버틸 만 해요. 링거 1시간도 맞으면서 울던 저는 6시간동안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는데도 버틸 만 했어요. 해보니까 안 아프더라 안 무섭더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해도 저는 무섭고 아플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버틸 만하고 참을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무섭고 아플 때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코디님들, 병원 간호사님들께서 여러분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코디님들, 병원 간호사님들 모두 합쳐 수십 명을 뵈었는데 모두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기증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증 과정 중 주말에도 밤에도 힘들다고 쟁쟁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관리해주신 배선영 코디님 덕분에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증을 진행한 저에게 멋지다고 하지만 저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힘써주신 정말 수많은 분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증자님의 용기 덕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격투기 선수 김형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 지금은 이렇게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격투기 선수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어렸을 적에 혈액 질환으로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식은 성인이 된 스무 살에 받으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8살 때,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생불량성빈혈의 치료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역치료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저는 면역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가 좋아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아서 성적으로 좋았고, 레슬링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아서 레슬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18살 때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재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치료를 한번 더 했어요. 당시에는 골수 이식이 대부분이었던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식 후 제가 살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골수 이식 말고 면역치료를 한 번 더 하겠다 해서 했는데, 이번엔 면역치료의 결과도 좋지 못했습니다. 표현이 좀 좋지 않지만,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무 살이 되었을 때,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4층에 있는 체육관에 올라가려 계단을 오르는데 2층만 갔는데도 너무 어지럽고 이명이 들렸습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렇게 정말 사소한 일상생활조차 누릴 수 없게 되어서, 이제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면 안 될 것 같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려면 마루

☆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을 받으려면

자신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기증자를 찾고 기다리는 동안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살 당시에 재발해서 면역치료인지 골수 이식 인지를 선택해야 했는데 HLA가 일치하는 기증자가 몇 분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의 확률이었기 때문에 면역치료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나 스무 살이 된 그 때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희망을 주려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확률이 80%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용기를 얻고, 2년 전에 기증하겠다는 분께서 거절하지 않고 기증을 하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을 받기 전의 전처치 과정이 정말 힘겹다고 들었습니다.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 과정은 어떠셨나요?

정말 진짜 너무 힘들어요. 무균실에 저 혼자 있어야 하고, 새 골수를 이식받기 위해 제 몸안에 있는 세포를 다 없애야 하는데 그냥 힘들다라는 표현으로는 다 설명이 되질 않아요. 한달동안 혼자서 외로웠던 것도 힘들었고,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겨우 토해내게 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마음대로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길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당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련이 생길지라도, 그때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낸 기억이 있는 덕분에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혈모세포(골수)가 내 몸에 들어오는 느낌은 어떠했나요?

중심정맥관에 연결한 히크만카테터를 통해 이식받았습니다. 나중에 히크만카테터를 삽입했던 곳을 문신으로 남겨두었는데요, 들어오는 감각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수혈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빠른 느낌만 있고 뭔가가 들어온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대신 간호사 선생님께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가족들이랑 함께 있었는데, 조혈모세포(골수)가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때는 기뻐서 씨익 웃었습니다.

이식 받은 날을 제2의 생일로 해서 기념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기념하시나요?

저는 2007년 5월에 두 번째 생일이 생겼습니다. 이식받은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전까지는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전화를 했어요. 그 날이 되는 자정에 대뜸 전화를 해서, “저는 전에 그 병원에서 골수이식을 받은 김형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원실은 3교대로 나이트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밤 12시 늦은 시간에도 아픈 분들을 돌보는 선생님들께 건강해진 누군가의 소식을 들려드리면 힘이 되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감사하게도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격투기 선수로도 활동 중이시고, 체육관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체육관에 조혈모세포 기증자에게 드리는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드포인트라는 레슬링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혈모세포 기증자는 평생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기증자님이 오시면 솔직히 감사한 마음으로 뵙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저는 저에게 기증해주신 분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대신 제 앞에 계신 기증자님께라도 감사를 표현한다면, 저한테 기증해주신 분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기특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기증자님께 전하는 한 말씀, 그리고 기증을 망설이는 분들께도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제 기증자님은 대만에 계시는 40대 여성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증 당시의 제 나이를 생각해보면 어머니뻘인 분이시

쥬. 그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분의 용기 덕분에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디 뿌듯해하셨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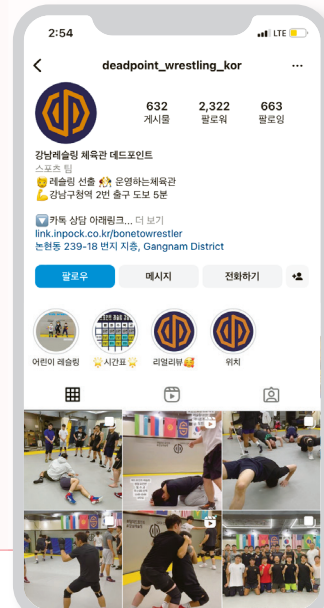
그리고 기증을 망설이는 분들께는, 만약 기증을 해주신다면 저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이, 더 멀리 퍼져나간다면 보다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수님
인터뷰 영상보기!



많.관.부!!



데드포인트 레슬링 체육관

강남점 서울 강남구 학동로44길 8, 지층 070-8158-8222

반포점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18길 29, 신우빌딩 401호 0507-1389-8222

감사의날

제 21회
조혈모세포 기증

9월 17일 토요일, 3년만에 대면 행사로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사업에 힘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4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까지 걸리는 조혈모세포 채집시간동안 곁에 상주하여 기증자가 안심하고 기증할 수 있도록 돕는 채취센터인 한양대학교병원 엄혜정 코디네이터님, 서울대병원 한새미 코디네이터님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우수모집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수원점과 메디컬 매버릭스, 목포대학교 MNU 사회봉사단 등 3개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헌혈카페 수원점’은 지난 해부터 헌혈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전체 기증희망자 모집 인원 수의 50%에 달하는 신규 기증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전달식을 위해 한마음혈액원 황유성 원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비임상 진로를 꿈꾸는 의대생 네트워크인 ‘메디컬 매버릭스’는 2020년,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했

으며, 전국의 의과대학과 국제성모병원 등에서 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특히, 문정훈 홍보위원(가톨릭관동대 재학)의 활약으로 인천 서구에서 장기기증 조례가 제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감사패 수여를 위해 최윤갑 회장과 문정훈 홍보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목포대학교 MNU 사회봉사단’은 적극적인 기증희망 등록 캠페인을 펼쳐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대학교 캠페인 중 100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캠페인 전 학우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등록 직후 응원 메시지 작성을 통해 기증의사 유지에 더욱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행사에는 학생지원과장 전수문 님과 사회봉사단장 이수민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어 주신 후원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터울 주식회사에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및 혈액암 환자 지원을 위해 매년 후원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터울 주식회사는 질병 타겟팅 광고 플랫폼 운영사로써 임직원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계기로 지난 해 10월,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약 안내문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 130만 명이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 이미지를 접했으며, 이에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 조혈모세포 기증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을 공모하여 조혈모세포 기증을 널리 알리고자 진행했으며,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의료진, 이식환자 등 총 11명의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의 마지막은 <조혈모세포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장학금> 전달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징검다리>는 2003년 2월에 결성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여 새 생명을 나눠준 기증자 모임으로, 2000년대 초반, 골수 기증이 일반적인 시절의 기증자부터 대

중화된 지금의 조혈모세포 기증자까지 모두가 모인 공간입니다. 생명과 생명을 잇는 징검다리로서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학업에 충실하고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정신을 실천한 대학생 기증자 4명을 선발해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홍보대사 배우 김명국 님의 건배사와 함께 마무리된 <제21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은 3년 만에 열린 만큼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상을 축하하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풍성하고 다채롭게 꾸미길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 조혈모세포 기증 사진 공모전

2022 제21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기념

조혈모세포 기증 사진 공모전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처럼, 한눈에 마음으로

헌혈처럼 이루어지는 조혈모세포 기증이지만 2인칭의 기록은 가족과도 같은 확신을 주며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혈액암 환자가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명나눔의 의미를 담은 그대 상냥한 미소,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그대 그림자도 그 순간만큼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남겨주세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리는 분홍색은 온 힘이 되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에게는 새 생명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공모 주제

- ①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및 기증 지원에서 영감을 받은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사랑 사진
- ②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 및 잘못된 오해를 개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진
- ③ 기증 희망등록, 기증, 기증 후 관리 모습
- ④ 기증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소중, 믿음, 용기, 사랑, 희망의 사진 등
- ⑤ 기증 희망등록, 기증, 기증 후 관리 모습 등

공모 자격

- ① 조혈모세포 기증자
- ②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대상자 가능
- ③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심 있는 일반인
- ※ 우리혈액가 아닌 타 기관 기증 희망등록자는 '21 일반인'에 해당함
- ※ 공모 시작일: 02-737-5533 (연내 2, 3)

공모 일정

공모 기간: 2022년 2월 14일(월) ~ 7월 31일(일), 168일간
결과 발표: 9월 5일 (월)
시상식: 9월 25일 (매일)

기증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이메일 제출
이메일: kmdp.contest@naver.com

심사 규정

발행 기증: 무인 (스마트 폰, DSLR 등) 등
파일 형식: JPG, PNG, GIF, MP4, TIFF 등
(일괄시각의 경우 스킴하여 PDF 파일로 제출)

파일 용량: 최소 2MB 이상 10MB 이하
사진 크기: 폭: 10cm 이하, 높이: 15cm 이하 (인상용 이하)

출품 대상: 1인 1부까지 출품 가능 (1인 1부 이상은 1인 1부로 한정 출품) 2인 1부까지 출품 가능 (2인 1부 이상은 2인 1부로 한정 출품)

시상 내역 총 상금 160만원, 1명

구분	명수	상금	비고
대상	1명	300,000원	상사(장려)에 따라 시상
최우수상	2명	각 100,000원	상사(장려)에 따라 시상
우수상	2명	각 100,000원	상사(장려)에 따라 시상
장려상	2명	각 100,000원	상사(장려)에 따라 시상

공모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https://kmdp.or.kr>
이메일: kmdp.contest@naver.com
전화: 02-737-5533 (연내 3)

한국조혈모세포기증사업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

대한적십자사
Korea Red Cross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성을 널리 알려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하는 혈액 암 환자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자 <2022 조혈 모세포 기증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168일의 공모기간동안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의료진, 이식환자 등 총 89 명이 이번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1, 2차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지난 9월 17일에 열린 <제21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혈액암 환자를 위한 생명나눔의 첫 시작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 순간부터 2만분의 1의 기적으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생명나눔의 약속을 지켰던 그때, 그리고 안전한 기증을 위해 서포트하는 의료진의 모습과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새 생명의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된 가족의 모습까지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숭고한 생명나눔의 시간을 담은 사진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제21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시상식



최우수상 박수용, 대상 김형도 수상자



우수상 수상자 조동기 장보빈 김준석



대상 수상자 김형도 기증자님 수상소감



작품명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라

사실, 으레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받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놀라서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좋은 기회로 운이 좋아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했고, 그 사진을 ‘기증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살던 외할머니께서 제가 성인이 되고 아이의 기억력으로 돌아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가 있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군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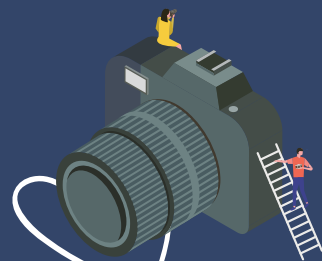
후, 헌혈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도 같이 신청했고, 10년 뒤 연락이 와서 기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먼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삶은 명예로워지고, 감동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무수히 많으며, 조혈모세포 기증은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큰 용기가 귀중한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니 적극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KMDP는 다양한 형태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널리 알려 한 분이라도 많은 혈액암 환자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자 정나해 김석진 엄세호 김병철 최성균





작품명 기증자 분들을 기다리는 서울대학교병원 헌혈실 의료진
최우수상 박수용



작품명 선생님, 힘내세요!
최우수상 노화경



작품명 또 다른 보빈이의 생일
우수상 장보빈



작품명 생명나눔, 바로 '우리' 군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수상 조동기



작품명 기증, 기적이 된다
우수상 김준석



작품명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장려상 김석진



작품명 생명을 나누는 행복
장려상 엄세호



작품명 소아암 환우분들을 응원해주세요
장려상 김병철



작품명 성분 헌혈과 다르지 않은 기증 방식
장려상 최성균



처음그마음
지켜주실거죠?

작품명 처음 그 마음 지켜 주실 거죠?
장려상 정나혜

조혈모세포 기증자 징검다리 장학금 전달식

조혈모세포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를 아시나요?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혈액암 환자에게 생명을 나누었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는 2003년에 2월에 결성되어 2012년 9월에는 부울경 지역의 징검다리도 만들어졌습니다. 골수 기증자부터 지금의 조혈모세포 기증자까지 모두 모여있는 조혈모세포 기증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습니다.

<징검다리>에서는 기증 경험담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생명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리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에 참석하여 일반 시민분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리고, 동참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9월에는 부울경 지역에 거주하는 기증자가 모여 부산 시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소식을 공유하며 친목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히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한 대신 <징검다리>에서 후배 기증자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나눔활동에 기여하는 대학생 기증자 4명을 선발해 각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정규성 2022년 6월 기증

작년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알게 되어 기증희망등록을 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HLA 항원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계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책임감과 중압감이 느껴졌으나 혈액암을 앓고 계신 환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증에 임했습니다. 지난 6월 조혈모세포 기증이 계기가 되어 협회의 다양한 홍보 활동과 행사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증희망등록을 하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징검다리 장학금을 통해 앞으로도 학업과 병행하여 기증에 대해 알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증자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2022년 5월 기증

먼저 이렇게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할수 있는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이런 저에게 이렇게 큰 장학금을 주셔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혜자로서 이 장학금 취지에 누가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2019년 1월 기증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 아주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혜를 받으신 환자분께서 퇴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징검다리 장학금은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목표로 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경 2019년 7월 기증

처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 했을 때는 군 복무를 하고 있던 때라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솔직히 휴가를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조금 힘든 과정을 겪어보고서 내가 흘린 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봄으로써

아주 뜻깊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기증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기꺼이 할 것입니다.

노봉수 징검다리 회장은 “20년 전, 우리나라의 최고령 기증자로 골수기증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의 오늘과 같은 행사에서는 서로를 알 수 없는 기증자와 환우 가족이 모여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생각했었지만, 그날만큼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기쁨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자 마로니에 공원에서 캠페인도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들어가는 젊은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부디 이 장학금을 통해 생명나눔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그 기쁨을 주변에 나눠주기를 바랍니다.”라며 후배 기증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왼쪽부터 징검다리 회원 이만욱 | 장학생 정규성 | 징검다리 회장 노봉수 | 장학생 김정학
장학생 김민수 | 장학생 최대경 | 징검다리 총무 박철희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 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 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서약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푸르덴셜생명 제주지점 등 임직원 여러분, <조혈모 프렌즈> 단원, 경기남부경찰청 8기동대, 잠실중앙교회, 메디컬 매버릭스 박현서 홍보위원 (차의과학대학), 헌혈카페 수원점, KMDP 서포터즈 박태현(부산가톨릭대), 정나혜(을지대 의정부캠퍼스), 강릉영동대 간호학과 <가온누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굿나래>, 목포대 도림캠퍼스 <MNU 사회봉사단>, 한림성심대 간호학과 <빠담빠담>, RCY 경북지사(경북과학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안동대, 안동과학대), RCY 대구지사(경북보건대, 계명대, 대구대), 로타렉트(대전대) 등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 및 단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2022년 2월 ~ 9월 활동 내용



22.02.25.
메디컬 매버릭스



22.03.27.
마로니에 공원



22.04.04. ~ 22.04.06.
계명대학교



22.04.06.
대구가톨릭대학교



22.04.23.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22.04.24.
마로니에 공원



22.04.25.
경북과학대학교



22.04.26. ~ 22.04.27.
대구대학교



22.04.28. ~ 22.04.29.
대경대학교



22.05.03. ~ 22.05.04.
강릉영동대학교



22.05.07.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위원 위촉식



22.05.10.
대구한의대학교



22.05.11.
경북보건대학교



22.05.11.
군산대학교



22.05.12.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22.05.12.
푸르덴셜생명 제주지점



22.05.14. 푸르덴셜생명
(조혈모프렌즈창단식)



22.05.17.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22.05.18.
대전대학교



22.05.21.
서울월드컵경기장



22.05.23. ~ 22.05.24.
부산가톨릭대학교



22.05.25.
안동과학대학교



22.05.26.
안동대학교



22.05.29.
마로니에 공원



22.06.26.
마로니에 공원



22.07.26.
경기남부경찰청 8기동대



22.07.31.
마로니에 공원



22.08.06.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22.08.07.
잠실중앙교회



22.08.22.
푸르덴셜타워



22.08.26.
KB라이프 사회공헌위원회 워크숍



22.09.01. ~ 22.09.03.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



22.09.21.
경북과학대학교



22.09.22.
동양대학교



22.09.25.
여의도 한강공원



22.09.26. ~ 22. 09.27.
계명대학교



22.09.28.
강릉영동대학교



22.09.29. ~ 22. 09.30.
한림성심대학교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위원 활동을 되돌아보며

문정훈

메디컬 매버릭스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팀장



안녕하세요, 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5학년 (본과 3학년) 재학 중인 문정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는 2021년 Medical mavericks(메디컬 매버릭스)라는 의대생 단체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위원을 맡으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각 학교의 홍보위원들의 활동을 돕는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1년은 여러 가지로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던 해였습니다. 조혈모세포 관련 활동들도 이에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병원과 연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지역구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기증을 약속해놓고 취소하는 사례도 있고, 이식 과정이나 후유증 등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관심 역시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의대를 다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조혈

모세포 기증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이토록 의미가 큰 행동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러한 생각이 들자, 일을 한 번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홍보하고 기증희망등록자를 모집하는 것을 넘어, 학생부학장이셨던 국제성모병원 이용원교수님께 병원 차원에서 홍보와 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진행해도 되겠냐고 여쭙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승인을 해주셨고, 병원 내 장소 대여와 원내 캠페인 공지 방송, 로비 대형 스크린에 캠페인 정보를 띄워 주시는 등 병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병원 각 층을 돌며 홍보물을 부착하고, 동기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팸플릿을 나눠드리며 열심히 홍보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캠페인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뿌듯한 감정만이 남아있지만, 당시 솔직한 마음으로는 기대했던 만큼 기증희망등록자가 많지는 않아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병원은 몸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오는 곳이며, 직원들에게는 바쁜 업무 와중에 시간을 내서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등록에 참여하기 쉬운 환



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관심을 보이신 직원분들도 있었으나, 만 40세 미만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 발걸음을 돌리신 분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 목적

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한 것, 적어도 조혈모세포라는 단어를 인식 시킨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큰 행사를 직접 기획/진행하고 피드백을 한 것이 앞으로 살아갈 저 스스로를 위한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前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이경 의원님께서도 조혈모세포 기증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캠페인 현장에 방문하셔서 조혈모세포를 알리는 데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인천 서구청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덕분에 최종윤 부구청장님께도 조혈모세포 인식 개선에 대해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인천 계양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 서구에서도 조혈모세포 등 장기조직 기증 장려 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첫 시작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람을 알리고 싶어서’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무모했을 수 있는 일에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일을 한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일개 대학생으로서는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을 했고, 목적도 충분히 달성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홍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해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한국조혈모세포은행 협회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여전히, 조혈모세포 인식 개선을 위해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바빠 타인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선한 사람들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널리 알려 한 명의 기증자라도 더 생기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소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KMDP

대학생 서포터즈 온빛



정나혜

온빛 : 온 세상에 빛을 주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로니에 공원에 하얀 천막이 세워지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여름 앞새처럼 푸른 조끼를 입은 우리는 KMDP 대학생 서포터즈다. 나이도 학교도 사는 곳도 다른 우리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는 '그것'이 있다. '그것'은 희망과 함께하며, 기적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용기가 필요하다.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이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리기 위해 17명의 단원이 '온빛'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는다.

3월 27일, 창단식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창단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들뜨고 어색한 공기를 즐기는 편인데 이 어색한 공기가 훗날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보는 것이 펍 즐겁다. 즐거운 상상 끝에 어느새 도착한 협회 앞에서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먼저 도착하신 단원분을 따라 본인 이름이 적힌 자리 앞에 착석했다. 곧 창단식이

시작되었고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된 간략한 교육과 전반적인 활동계획을 들었다.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몇 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활동을 진행하며 분명 다양한 일을 겪을 것이다.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차올랐다. 이는 분명 중요한 역할이며 최선을 다해 해내리라 다짐, 또 다짐했다.

다음으로는 서포터즈 이름을 정하는 순서가 찾아왔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중 투표를 통해 '온빛'이라는 이름이 선정되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의 사랑을 받아 온 세상에 빛을, 따뜻함을 주는 서포터즈가 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이 생기니 단원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분명



모든 단원들이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온빛, 우리를 하나로 엮어줄 소중한 그 이름. 이후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선출하였는데 감사하게도 단장을 맡게 되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매사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드리며 조혈모세포 홍보 및 인식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몇 개월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켜본 마로니에 공원은 여유로운 음악 소리와 분주한 종종걸음이 함께 하는 곳이었다.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마로니에 공원을 찾는다. 첫 기증 홍보 캠페인, 조혈모세포 기증 안내 팸플릿과 피켓을 들고 있으니 가장 먼저 막막한 심정이었다. 마침 팸플릿을 내미는 손길을 몇 차례 거절당한 후였는지라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르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허망하게 바라보다 저 멀리 비슷한 상황의 단원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상태일 수는 없는 법.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나의 최선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을 거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는 알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좋은 인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려 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이 골수에서 뽑는 그걸 말하는 건가

요?’ 라던지 ‘이거 하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데, 그럴 때면 더 분발하여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와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끊임 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다.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면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라는 말을 꽤 많이 듣는다. 물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몸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겐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2만분의 1의 기적이라 일컫는다. 낮은 확률을 뚫고 기증자와 수혜자의 정보가 일치하는 기적. 환우분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기적. 초능력자가 되어 모두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순 없지만, 서포터즈 ‘온빛’으로서 활동하며 기적으로 가는 한 계단을 함께 쌓아 올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느덧 창단식보다 해단식이 더 가까운 시점이 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활동도 응원하는 마음으

로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단원들과 함께 끝까지 달려보리라. 빛이 있어 밝고 따뜻한 세상이 되듯,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의 마음에 빛으로 피어날 것이다.



KMDP

대학생 서포터즈 온빛

INTERVIEW

기증자께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발 벗고 나서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KMDP 코디네이터 **정현신** 인터뷰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식조정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정현신입니다.

✱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는 아직 사람들에게 생소한데요, 코디네이터가 무엇인지,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코디네이터는 업무나 일의 진행 및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식조정 코디네이터의 경우, 비혈연 환자와 공여자 사이에서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환자와 공여자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자 측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등록 당시의 기증희망정보를 바탕으로 대표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분을 찾아 연락을 드립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한 환자분이 계시다고 안내 드리고, 상세한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후 기증자분께서 기증을 동의하시면 기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니다.

기증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뤄지는데요, 유전자 정밀 검사를 통해 유전자형의 정밀 값까지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검진 일정, 입원 일정, 진행 병원, 입원일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기증 동의 시점부터 기증이 끝날 때까지 전반적으로 기증자와 이식 의료기관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기증자분의 건강 상태까지 코디네이터가 관리합니다.

✱ 어떻게 코디네이터에 대해 알게 되셨고, 이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는 채혈실이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검체를 검사하거나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업무들을 했습니다. 이직을 위해 정보를 찾던 중 우연히 KMDP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를 찾아보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조정 코디네이터는 출장업무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주로 무엇을 하나요?

유전자 정밀검사를 진행할 때 협조기관이나 보건소 등의 방문이 어려운 분이나 부대 내 채혈 협조가 불가능한 군인들이 계실 때 출장을 나갑니다. 채혈 및 혈압 측정,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외에도 검진 및 입원에 대해서도 출장을 나갑니다. 서울 내에서

의 입원은 출퇴근하지만, 지방의 경우 2박 3일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기증 일정을 관리합니다. 해당 병원에 가서 입원 날부터 기증 날까지 기증자의 컨디션, 제반 사항 등을 확인하고 조율합니다.

***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안타까운 일, 기쁜 일 모두 괜찮습니다.**

한 환자분이 유전자형이 일치한 기증자 분께 기증 요청을 하셨는데 환자분 사정으로 기증이 종결됐습니다. 그 후 환자분께서 다시 요청하셨고 그때는 기증자분이 외국 일정이 잡혀 기증이 종결되었습니다. 또 그 후 환자분께서 기증요청을 하셨는데 그때는 기증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3번의 시도 끝에 이뤄진 셈이지요.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에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환자분이 3번의 시도 끝에 결국 이식을 받으셨다는 안도감과 함께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라 느꼈습니다.

***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바뀌게 된 것이 있으신가요?**

이 일을 하면서 비혈연 기증자께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발 벗고 나서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기증자분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려 노력하는 자세와 함께 기증이 최대한 성사될 수 있도록 조율이나 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 더욱 신중해지고 고민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으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나요? 또 어떻게 하면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나요?**

코디네이터는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증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기증자분과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런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안내하고, 다양한 것들을 챙겨야 하므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KMDP는 저처럼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에 한해 뽑습니다. 또한, 체혈하실 수 있는 능력도 봅니다. 간혹 병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지원하시지만, 혈액 종양내과나 헌혈실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일을 좀 더 이해하고 배우는 데에는 쉬울 것 같습니다.

*** 코디네이터로서 환자분이나 기증자희망자는 미래 기증희망자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미래에 기증희망을 생각하시는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증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전자형 일치 확률 또한 2만분의 1로 희박한데요, 간혹 기증을 가볍게 생각하시어 고민 없이 한다고 하셨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 환자분은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시고 컨디션 또한 많이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기증희망을 등록하실 때 꼭 여러 번 고민하시고 과정에 대해 충분히 검색해 보시고 본인이 정말 도움을 끝까지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 등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어떤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환자분을 더욱 생각하고 기증자분도 원

활하게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게 제가 더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고, 제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기증에 대해서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신가영

KMDP

대학생 서포터즈 온빛

INTERVIEW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에게는 일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인생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코디네이터 **남궁지혜** 인터뷰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남궁지혜입니다. 저는 조혈모세포 이식 및 장기이식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 이식센터와 채취센터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먼저 이식센터의 업무로는 첫째로, 질병의 치료단계에서 이식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간 이식인 경우, 기증자 상담 및 기증자의 건강검진과 이식일정을 조정하며, 순수기증자 이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HLA 일치가 되는 기증자를 검색하

고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KMDP와 함께 기증자 진행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조혈모세포 이식사전승인신청 및 원내 여러 부서와 이식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취센터 업무로는 원내 기증자 및 순수기증자의 조혈모세포 채취 일정 조율과 건강검진 결과확인을 하고 있으며, 순수기증자의 경우 KMDP를 통해 이식센터에 기증자의 검사결과 전달 및 원내 부서와의 업무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채취센터와 이식센터 이렇게 두 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본원은 이식센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식업무와 채취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센터라기보다는 한 센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가 조혈모세포이식과 장기이식 업무가 함께 있고, 어느 정도 계획 하에 진행되는 조혈모세포이식과는 다르게 장기이식은 대부분 응급상황에 벌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의 시간 배분이 약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혈액암은 사실 어디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질병도 아니며, 조혈모세포이식은 더더군다나 접해보기 쉬운 치료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혈액암을 진단받고 당황한 환자, 기증자에게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과 공감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업무를 하며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혹은 꿈이 있으신가요?

물론 지금 나이에서도 꿈은 있지만, 특별히 업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일 기회가 된다면, 저도 10년 전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해 두었는데 연락만 두 번 받았고 아직 연결까지 되지는 않았거든요. 저에게도 조혈모세포 기증자로 나눌 수 있는 감사한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혈모세포 기증자 우선순위는 사실 부모가 같은 형제자매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형제자매가 아예 없는 외동이거나 기증이 어려운 형제자매(고령, 질환 등)가 있으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이 25%이다보니, 유전자가 일치하는 형제자매로부터의 이식까지 이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 코디네이터님께 ‘조혈모세포는 어떤 의미인지’와 ‘기증 참여 독려 한 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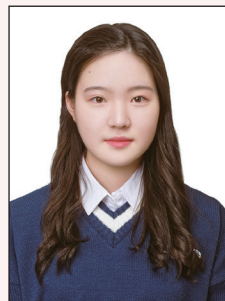
솔직히 조혈모세포기증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

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결심하셨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한 걸음을 내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기 위해서 기증자분은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 등으로 나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백혈구 촉진제로 인한 약간의 몸살기운 등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2일정도 입원하시고, 4시간 가량을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해 침상에 누워 계시기도 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에 참여해주신다면, 그 시간을 투자한 것 이상으로 커다란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환자 보호자분들은 기증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감사해하고, 더 많이 고마워 하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평생 기증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에게는 일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요 인생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채이



정나혜

KMDP

대학생 서포터즈 온넷

INTERVIEW

환우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혈액암협회 **장원영** 부장 인터뷰

✱ 한국혈액암협회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혈액암협회는 혈액 질환 및 암 환우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환우분들께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 조속히 완치되어 사회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교육, 상담, 정보지원, 해외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혈액암협회에서 경제적 지원 및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원영이고, 10년 전 악성 림프종을 진단받아 치료 후 봉사활동으로 시작해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혈액암협회에서 환우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크게 교육지원, 경제적 지원, 투병 지원, 출판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지원 사업은 실제 의료진분들을 모시고 환우분들께 올바른 투병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시는 환우분들께 경제적 지원을, 투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현혈증 및 항암 가발 등 투병 지원을, 투병에 도움이 될 정보를 담은 소식지 출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혈액암 환우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시고, 소식지 안에 있는 엽서를 보내주셔도 회원 가입이 됩니다. 가입비라든지 월회비 없이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우분들은 어떤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시나요?

교육 프로그램 중 이식하시는 환우분들만을 대상으로 BMT(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교육과 GVHD(이식편대숙주병) 같은 주제를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어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또한 투병 지원의 일환으로 항암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계신 상태에서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셔야 할 때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소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뀐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의료진과 환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대면 100%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



하여 꾸준히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어 대면 프로그램을 다시 조금씩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할 것 같습니다.

✱ 한국혈액암협회에서 근무하시며 뿌듯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시 서류를 우편으로 받고 있는데 그때 '너무 큰 도움이 된다'며 고맙다는 쪽지를 보내주셨을 때 뿌듯했습니다. 또 고령의 환우분들이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말씀을 하실 때, 교육 행사 강의를 끝나고 속 시원한 표정으로 가시는 분들을 볼 때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 후원 참여 독려와 환우 및 가족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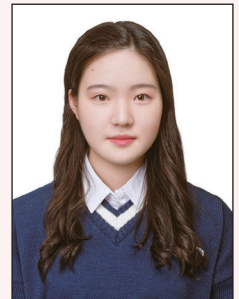
금액과 상관없이 후원이라는 것은 힘겹게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렵게 치료 받으시는 환경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후원이라고 생각해요. 금액이 됐든 물품이 됐든 환우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후원이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환우와 가족분들에게 제 예전 기억을 더듬어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치료 받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고 이게 과연 끝이 날까, 잘 될까 하는 불안함.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것들에 대한 억울함 같은 여러 감정이 있으실 텐데 안 잊혀질 것 같으면서도 한 10년 지나다 보니 그 감정도 잦아들고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용기 잃지 않으시고, 힘내시고,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티신다면 아프기 전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채이



정나혜



생명나눔, 사람이 하는 일

김건중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사무총장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과 그 혈액을 생성하는 어머니세포인 조혈모세포는 현대의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헌혈은 서로 같은 혈액형을 가진 이에게, 그리고 조혈모세포는 서로 같은 조직적합성 항원(HLA)을 가진 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수혈용 혈액은 많은 이들의 헌혈로 자급자족 되고 있는 것에 비해 조혈모세포 기증은 HLA 일치 확률이 0.005%로 매우 낮고,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

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기증희망자 모집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후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등록되면 이식조정 절차에 따라 기증자 조회, 상담,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가장 적합한 한 명의 기증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조혈모세포 채집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기증을 도모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앞서 기술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과 이식조정 업무 전반을 수



행합니다. 이에 협회 임직원 모두는 생명과 생명을
 있다는 중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
 하고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꺼이 나누는 기증자에게 인간적이고 진실한
 태도로 다가가 마지막까지 변치 않을 굳건한 기증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헌혈 그리고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생명나눔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숭고하고 고귀한 행위입

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조혈모세포 기증
 이 새로운 생명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
 고 희망의 물결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퍼져갈 수 있
 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KMDP NEWS



한국조혈모세포공여협회는 더 많은 분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022 조혈모세포 기증 사진 공모전

수기, 영상, 웹툰, 포스터 등 4개 부문으로 공모했던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에 이어 올해는 사진에 집중해 <2022 조혈모세포 기증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의 공모기간 중 89명이 참가했으며, 그 중 1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작은 KMD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조혈모세포 기증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를 풀고,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월 25일, 1회차를 시작으로 4월, 5월, 8월 등 총 4회차를 진행하는 동안 50여 분이 참여해주셨으며, 앞으로의 회차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김건중 사무총장 취임

2월, 이양화 사무총장의 퇴임 후 3월 2일, 김건중 사무총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과거 대한적십자사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의 혈액 사업의 선진화에 앞장섰으며, 초창기 KMDP의 설립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KMDP의 사무총장으로서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사업을 선도하고, 조직의 내실을 보다 튼튼히 다져 나갈 행보를 기대바랍니다.



4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업무협약 체결

조혈모세포 기증과 장기 기증 모두 송고한 생명나눔의 실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알고 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9일,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5 KMDP 대학생 서포터즈 7기, '온빛'

3월 27일, 올해로 7기째를 맞이한 KMDP 대학생 서포터즈는 '온빛'이라는 이름으로 16명의 단원이 모였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직접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갈 예정입니다.



6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선정

헌혈 기증품으로 기부권을 택하면 일정 금액이 정해진 기부처로 전달됩니다. KMDP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마음혈액원의 헌혈기부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에게 치료비와 희망박스라는 투병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혈액암 환자의 완치를 응원하겠습니다.

7 메디컬 매버릭스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위원 위촉

비임상 진료를 꿈꾸는 의대생 네트워크 '메디컬 매버릭스'와 지난 해 업무협약 체결 후, 지난 5월,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위원 2기 총 10명을 위촉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홍보활동으로 기증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한 기증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부터 헌혈증서 3,000매 기부

생명존중과 생명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부터 헌혈증 3,000매를 기부받았습니다. 이 헌혈증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및 의료기관 사회사업실 등에 전달되며, 이를 통해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기대합니다.



9 제21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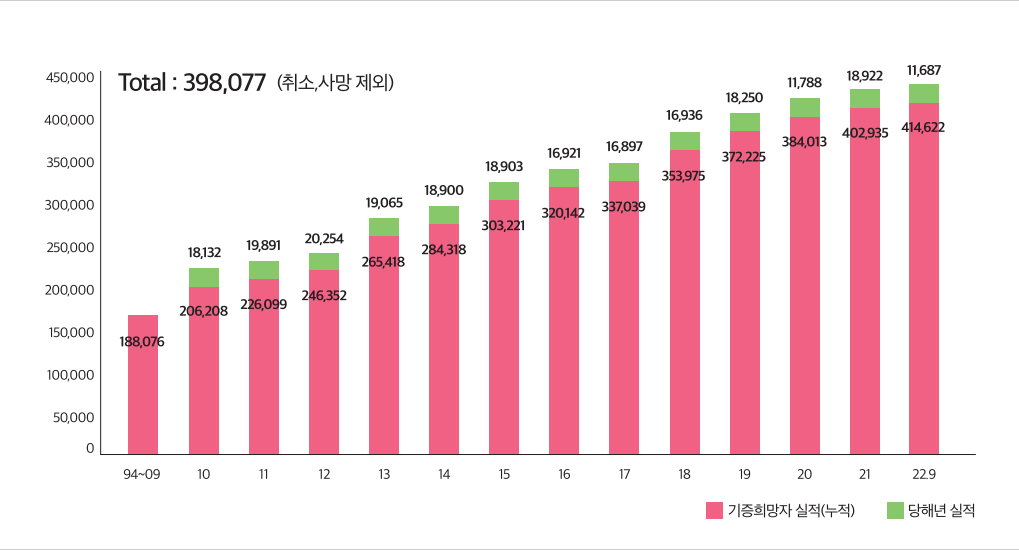
9월 17일 토요일, 3년만에 대면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사업에 큰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패 수여식과 <2022 조혈모세포 기증 사진 공모전> 시상식, <조혈모세포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6~21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등록 실적

자료제공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단위: 명)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자료출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단위: 명)



[illegible]

42

2016

[illegible]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이후 우리협회를 통해 실제로 기증하여 주신 분들의 성함입니다. (1996~2022.09 현재까지)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약봉투로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을 돕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및
미디어 서비스 기업,
터울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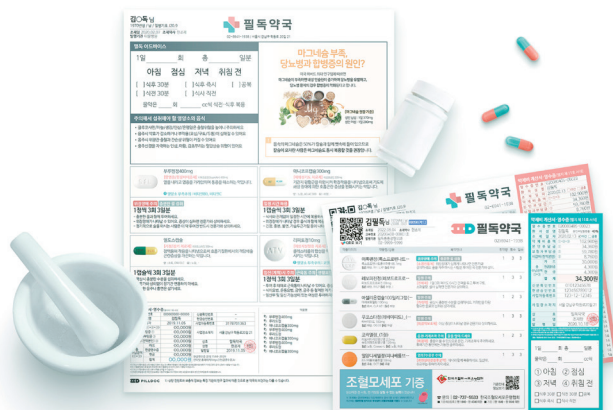
이수재 마케팅 이사

터울 주식회사는 2019년에 창업한 헬스케어 데이터&미디어 서비스 기업입니다. 약사와 환자분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프리미엄 복약안내문 서비스 필독(PillDoc)과 국내최초 질병 타게팅 광고솔루션 ADP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 창업 만 3년만에 전국에 약 4,200여처의 회원약국을 유치, 서비스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터울은 창업 4년차의 스타트업으로 창업 초기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다만 기업의 이윤을 나누는 단순한 기부(CSR, 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아닌 터울의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즉, 회사와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활동(CSV, Creating Social Value)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의 CTO (최고 기술 경영자)분이 10여년 전에 서약한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휴가를 내는 일이 생기면서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용어보다는 "골수 기증"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했던 구성원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 활동의 의미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터울의 복약안내문 서비스인 "필독(PillDoc)"의 약봉



투 지면에 조혈모세포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기증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질병과 나이, 성별을 구분하여 타게팅이 가능한 질병 타게팅 기술로 조혈모세포 기증 참여에 적합한 연령대의 경증 처방환자들에게만 캠페인 홍보물을 노출 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조혈모세포 인식개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찾아 터울의 데이터 및 타게팅 기술을 활용한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 개선 캠페인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협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덕에 2021년 10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1,114,537명에게 매월 12만명의 약국 방문 처방고객 분들께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하게도 협회의 담당자님으로부터 저희 터울의 복약안내문을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접하시고 직접 문의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터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약국이 많아지고, 터울의 서비스를 만나는 약국 고객들이 많아 질수록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더욱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 다가왔고 이런 점에서 회사의 성장만큼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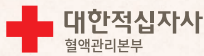
터울 주식회사는 앞으로도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대외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성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터울 주식회사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1. 11. 1. ~ ’22. 9. 30).

기업후원회원



개인후원회원

정기후원회원

강동우	강득록	강슬기	강영경	강용래	강원구	강인보	강종수	강진우
강태호	강행경	고영일	고영철	고유리	고윤석	고해정	고현종	공미아
공성진	공지현	권기정	권나현	권명순	권정도	권정미	권지혜	그린피엔터
김건중	김경민	김경선	김경심	김규현	김규환	김대중	김도하	김도훈
김도희	김동휘	김명길	김미란	김미소	김미지	김미현	김민정	김민지
김민호	김병국	김병주	김병한	김보섭	김보현	김봉규	김선아	김선정
김성중	김세염	김세진	김세현	김수동	김수정	김순영	김신영	김영림
김영자	김영재	김영준	김예래	김유성	김은경	김은숙	김은실	김은아
김은진	김은혜	김은화	김은희	김인숙	김재근	김재영	김재형	김정수
김정현	김종근	김종명	김주성	김지연	김지현	김지환	김지훈	김진관
김진우	김진웅	김창범	김충만	김태현	김태희	김하린	김학기	김현맥
김현엽	김혜민	김혜민A	김혜민B	김혜정	김화원	김 희	노규동	노연지
노영경	노현관	도훈파파	류길환	문변영	문정숙	문준호	문형곤	민병옥
민주영	박덕용	박민석	박민영	박보현	박봉태	박상실	박상영	박상현
박석환	박세림	박세용	박소라	박수경	박승노	박승혁	박시원	박안나
박영재	박인걸	박인태	박정환	박준형	박진솔	박찬영	박찬호	박천우
박춘명	박대진	박형민	박혜정	방극희	배원선	배인귀	백승진	사공희주
서동진	서태호	설화순	성영호	성주현	성진기	손명숙	손승완	손종서
손진화	송병덕	송종필	송지섭	송진솔	송척호	신기혁	신명준	신미란
신용호	신진경	안다슬	안진혁	안토리	안효섭	양승현	양철호	양 킨
여해숙	엄세호	엠앤에프코리아(주)	오덕교	오상호(이수비뇨기과의원)				오수현

오지연	오피스퀵앤티화물	오현숙	우영택	원용식	원형식	유광운	유미나
유변림	유수진	유승수	유영철	유우진	유원영	유현철	육전수
윤서진	윤재성	윤지용	이경숙	이경희	이규희	이금주	이나연
이동훈	이미란	이민옥	이민호	이상민	이상현	이상환	이서현
이성수	이승현	이수경	이수나	이수현	이승현	이언옥	이영재
이영호	이용섭	이유진	이은민	이은지	이은진	이은화	이은희
이재수	이재우	이재호	이정윤	이정호	이종무	이지영	이지은
이지혜	이진숙	이창석	이창휘	이하승	이혁중	이현세	이현아
이현지	이형희	이혜연	이호영	이화영	이효석	임다솔	임명희
임선묵	임선영	임성빈	임재영	임한삼	장경호	장미현	장영석
전도석	전성대	전원빈	정계숙	정구현	정기업	정기운	정남교
정달영	정성미	정성훈	정승섭	정승혁	정영권	정윤숙	정재호
정정숙	정진영	정진오	정혜레나	정현주	조규섭	조동형	조빛나리
조승희	조옥주	조윤희	조은길	조정희	조한승	조항민	조흠채
차중철	차형덕	채은석	최관호	최도례	최미월	최상필	최승관
최연정	최윤희	최우석	최유니	최은진	최지영	최철식	최효목
추세란	하세린	하중률	하지혜	한보석	한성심	한성호	한소라
한순옥	한승철	한연숙	한원배	한윤탁	한일호	함경지	함정은
허란경	허미경	허지웅	현정희	현 진	호인걸	홍가영	홍경석
홍혜경	황대만	황 용	황원철	황유성	황은선	황정환	황지원

일시후원회원

강성운	강철원	고은희	고정하	공준호	김기영	김길성	김동환	김병주
김분야	김상철	김성림	김세림	김수영	김순예	김 신	김예솔	김용진
김인수	김일수	김철순	김해정	나예빈	맹수현	문효식	박두리	박수빈
박용성	박윤희	박이용	박준형	박현구	배유진	백소연	서선희	서순현
석기응	선상욱	손경화	손지훈	송인구	신광호	심희진	안규현	양승현
엄상혁	오주연	오홍범	유민희	유윤석	윤고은	윤정선	윤 진	윤현미
윤희란	음공관	이동호	이미선	이상기	이예담	이은경	이재원	이정란
이정호	이지연	이현철	이희선	임부영	임충성	장선웅	전금석	전병윤
전성연	정수연	정윤숙	정희선	조근아	조영찬	조정일	조흠채	주영애
주우희	진정민	최강빈	최문석	최사빈	최승현	최윤철	최효목	편연희
하상길	하 진	한영숙	한지혜	현혜리	홍민지	홍지은	황왕연	

혈액암 환우 응원 프로젝트

권나현	권혁연	김량희	김우영	김하진	배상은	배성재	배재영	이보미
이옥선	임체리	조수미	조예은	홍경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및 혈액암 환자 지원을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www.kmdp.or.kr > 후원 > 개인후원 신청 (정기 후원 혹은 일시 후원 선택 가능)
문의 02-737-5533, 안내 3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에 의거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암 환우 응원 프로젝트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지난 3년간 아래와 같이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치료비 및 투병물품 지원

구분	2020	2021	2022. 9	합계
치료비 지원	35명	41명	31명	107명
	75,212,000원	84,796,000원	72,000,000원	232,008,000원
투병물품	300명	300명	300명 예정	900명 예정



주요 후원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2018, 2021, 2022)
한마음혈액원(2016~현재)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2020~현재)
사랑의열매(2020)



히크만 주머니 지원

구분	2020	2021	2022. 9	합계
후원 참여	327명	691명	66명	1,084명
환자 지원	18명	332명	143명	493명
	54개	996개	429개	1,497개



히크만 주머니는 환자 1인당 3개씩 제공되는 점과 사용하기에 적합한 주머니를 제공하고 있어 참여자 수와 지원자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후원사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2018~현재)
현대백화점그룹(2021), 청정원주부봉사단(2020)

헌혈증 기부 및 지원

구분	2020	2021	2022. 9	합계
헌혈증 기부	21명	17명	6명	44명
	391매	774매	3,343매	4,508매
헌혈증 지원	11건	58건	17건	86건
	6,350매	47,350매	1,800매	55,500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및 기증자 예우로 지원하는 헌혈증은 1인당 연간 최대 50매이며, 의료기관 사회사업실의 경우, 최대 2천매를 지원합니다.

주요 기부처

조혈모세포 이식병동이 설치된
대형병원 사회사업실 및 환자지원단체 등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함께

혈액암 환우를 응원해 주세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혈암 인형 만들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캐릭터 조혈암, 적혈이, 백혈이, 소판이를 인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인형은 소아암 환자에게 전달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참여 후원금 1세트당 3만원

인형을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중심정맥관 외부를 연결해 주는 히크만 카테터를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히크만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주머니는 혈액암 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참여 후원금 1세트당 1만원

주머니를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마스크 만들기

힘든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마스크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참여 후원금 1세트당 1만원

마스크를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획관리팀 02-737-5533, 안내 3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홈페이지
<http://kmdp.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kmdp0311>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mdp_official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여

신청장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방문
(단체의 경우 출장 접수 가능)

문의

02-737-5533, 안내 2(기증증진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mdp0311>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꼭 알려주세요!

기증희망등록 이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님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자만 가능)

🌐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https://kmdp.or.kr> → 우측 킷 메뉴의 정보변경 → 변경내용 작성 → 확인

☎ 전화로 변경하기

02-737-5533, 안내 2(기증증진팀)



잠들어 있는 한혈증을 기부해 주세요!

수혈로 인한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한혈증을 보내주세요!

기부해주신 한혈증은 지원규정에 따라

혈액질환으로 치료중인 환자분들께 전달 드립니다.

☎ 한혈증 기부 및 지원 문의

02-737-5533, 안내 3(기획관리팀)

📍 보내실 곳

(0433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획관리팀 앞



새 생명의 기쁨을

너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가득 싣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중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싣고 오늘도 날아갑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